

영암 대불산단, ‘구조 고도화사업’ 선정

2020년까지 2476억 투입 11개 사업 추진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사업 확산단지 공모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돼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20년 이상 된 노후 산단을 중심으로 일하며 배우고 문화생활도 누리는 복합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암군은 지난 9월 공모를 신청했다.

10일 영암군에 따르면 1989년에 착공된 대불국가산단은 현대삼호중공업 등 대형 조선소와 선박기자재 산업이 집적화된 산업단지로서 전남 서남

권의 지역경제 성장을 주도해 왔으나 생산위주의 저부가가치 산업구조와 인프라시설 미비, 도시공간 체계 미비 등으로 산업단지의 구조개선이 필요한 상태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영암군은 지난 8월 전남도, 산업단지관리공단 대불 지사, 전남도시개발공사, 대불산단 경영자협의회 등 8개 기관 14명으로 긴급 T/F 팀을 구성해 대불산단에 필요한 기술 고도화 및 업종의 다각화 추진사업, 조선해양 특화산업으로의 리모델링 사업, 전문인력 정주기반 조성사업 등 구조 고도화를 통한 자생적 산업 생태계 구성 계획을 수립했다.

대상지 선정으로 영암군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대불국가산단 구조 고도화에 총 2476억원을 투입해 11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조선해양 엔지니어링 국제인증 기반 구축사업 ▶조선해양산업 생산기반 구축 및 업종 다각화 지원사업 ▶특화선박 기술개발 기반구축사업 ▶복합 비즈니스센터 구축사업 ▶전선 선로 지중화 사업 ▶도로환경 정비사업 ▶배수 펌프장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산업단지 문화복지 증진사업 ▶근로자 기숙사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 ▶외국인 체제기반 시설 확충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이다.

영암군은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계획’을 내년 6월까지 수립해 내년 7월 중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계획



영암 대불산단 전경.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일태 영암군수는 “대불국가산단의 구조 고도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영암의 미래 성장 동력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

이라며 “대불국가산단이 전남 서남권의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대성수기자 dss@

여수 거북선호 야경투어

내년 2월까지 연장 운영

여수의 야경을 만끽할 수 있는 거북선호 ‘야경투어’가 내년 2월까지 연장 운영된다.

10일 여수시에 따르면 야경 투어 운영은 매주 금·토요일 오후 6시 오동도 음악분수대 앞에서 출발해 거북선대교~이순신광장~장군도~돌산대교를 거쳐 오동도까지 되돌아오는 1시간 20분 코스로 구성됐다.

여수시는 당초 거북선호를 지난 10월까지 운항하기로 했으나 여수 야경을 즐기려는 관광객 증가와 관광상품의 필요성에 따라 내년 2월까지 연장 운항하기로 했다.

특히 관광객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오는 12월 24~25일 성탄절과 내년 1월 30일과 2월 1일 설 연휴 기간에는 추가 운항한다.

승선요금은 어른 1만5000원,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7500원이며, 여수관광 할인쿠폰 소지자는 10%, 여수시민은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여수관광의 이색상품으로 자리 잡은 여수 거북선호 이용객 수는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10만5000여명이다.

여수시의 한 관계자는 “거북선호 야경투어는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관광상품으로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관광객들이 겨울 여수바다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천관산 만추

10일 장흥 천관산의 단풍이 절정을 이뤘. 늦가을 정취를 물씬 풍기고 있다. 호남의 5대 명산인 천관산은 단풍과 다도해의 절경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어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장흥군 제공〉

전남 향토자원 육성사업 국비 90억 확보

농림부 공모사업 거문도 해풍썩·신안 건정 등 6개로 전국 최다 선정

전남지역 향토자원 육성사업이 날개를 달게 됐다.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2014년 향토산업 육성 공모사업에 여수 거문도 해풍썩과 신안 건정 등 도내 6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90억원을 확보해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39개 사업이 신청해 예비 선정을 거쳐 전남 6개 사업을 비롯해 최종 20개 사업이 확정됐다.

선정된 사업은 거문도 해풍썩, 고흥 유자한우, 신안 건정(마른 생선), 장성 마을반찬, 강진 황금 한우, 장흥 표고식품 등이다.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4년간 국비 90억원을 포함, 180억원(개당 3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가공시설 확충, 상품개발, 브랜드 육성 등에 집중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이끌 대표산업으로 육성하게 된다.

도는 2007년 이후 모두 46개소의

향토사업이 선정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량(전국의 23%)을 확보해 추진하고 있다. 현재 추진되는 40개의 향토사업에는 국비 427억원을 포함, 총 852억원이 투입된다.

사전에 산·학·연·관 연계를 강화하고 전문가 심층자문 등을 통해 내실있는 사업계획 수립을 준비해 온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도가 지난해까지 추진한 35개 사업을 대상으로 성과를 자체 분석한

결과 기업매출액은 사업 전보다 82%, 참여농가의 호당 소득액은 76% 늘어나는 등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도는 앞으로도 향토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향토자원의 특성을 충분히 살려 가공식품 개발에 따른 상품 고급화는 물론 조직화와 기업화 유도도 지역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서은수 전남도 식품유통과장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내실있는 지도를 통해 6차 산업의 성공모델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공공비축미 하역 도우미’ 아시나요

담양군, 올해 첫 도입

고령화 농촌 큰 도움

담양군이 올해부터 공공비축미 수매 하역 도우미 제도를 도입해 고령의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지난 7일 수북면을 시작으로 ‘2013년 공공비축미 건조벼 수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달 5일까지 4984t(12만4610 가마/40kg)을 매입할 계획이다.

이번 주에는 11월 봉산(신화리)과 월산(월산리), 12월 무정(봉안리), 대덕(매산리), 금성(석현리), 13일 수북(주평리), 무정

(봉안리), 대덕(매산리), 14일 담양(양각리), 고서(동운리), 15일 대전(대치리) 용면(추성리)에서 각각 수매한다.

군은 특히 이번 수매부터 농촌의 고령화와 부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포대벼 하역 및 적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담양군 후계농업경영인회(회장 이상남)의 협조를 얻어 하역 도우미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최형식 군수는 “수매 하역 도우미들이 힘든 하역을 전담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고령화 된 농촌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gg@

“배추·버섯 재배법 미리 배우세요”

귀농 희망 직원·가족 대상

광양제철소 영농교육 성료

광양제철소(소장 백승관)가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 활용과 퇴직후 귀농을 희망하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2013년 예코팜 영농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난 1월 스프링클러 동파 보수작업을 시작으로 시작된 영농교육에는 11월까지 모두 280여 명의 포스코 가족이 참가해 상추, 배추 등 채소류를 비롯한 블루베리, 버섯 등 재배법이 까다로운 특용작물 등에 대한 재배법을 익

했다. 예코팜 영농교육은 매월 첫째, 넷째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작물의 생육기간을 고려한 학습과정

을 편성해 이론과 실습교육을 병행했다.

또한 광양시농업기술센터의 도움으로 귀농·취농에 성공한 선배 농부들의 체험담과 일터 견학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했다.

예코팜 관계자는 “매년 교육생들의 교육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론교육에 그치지 않고 실습위주의 현장감 넘치는 교육으로 예코팜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제철소 예코팜은 2011년 금호동 주택단지 내 유휴지에 비닐하우스 2동을 지어 실습장을 갖춘 이래 교육생들이 친환경 재배법으로 수확한 작물을 활용해 반찬을 만들어 어려운 이웃에 전달해 오고 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최근 예코팜 영농교육에 참가한 포스코 가족들이 배추를 수확하고 있다.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공전 → 시공후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전적이나 탐방전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주 381-0061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삼화] 274-5987
목포[건영] 243-7463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71% 할인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특수가발 별매(윈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